

12월 25일은 메시아절

메시지 전문

여러분들이 메시아절을 기념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 메시아를 모셔 메시아절의 존재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구세주를 말하며 구세주는 바로 나를 구원하는 존재인 고로 내가 변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야 메시아가 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만 메시아를 영접하고 이웃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메시아가 이 세상에 나타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서 선구자적 입장에서 전 세계에 나아가 메시아의 진리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면 입으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행동과 마음으로 전하려면 메시아의 율법을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모두 메시아가 되어야

메시아의 율법이 자유율법이고 자유

율법이 메시아의 율법인 고로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메시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의 율법을 자신 속에서 완성시키면 그가 바로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메시아가 될 때에 메시아의 뜻이 완성됩니다. 메시아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인지 메시아의 뜻을 완성시키지 아니하고 자신만 메시아라고 우리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자유율법을 지키어 구세주가 될 때에 비로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마귀를 죽이는 법, 사망을 이기는 법, 이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법, 영생의 법이 되는 자유율법을 지키며 세상에 나아가 이 자유율법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짜 구세주, 가짜 메시아가 외쳤던 이 세상의 율법은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일일이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짜 구세주는 자기만이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구세주는 자기만이 구세주가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세주가 되어야 한다고 외치며 세상 사람들을 다 구세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구세주와 가짜 구세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진짜 구세주가 오면 이 세상은 죽음이 없는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가짜 구세주는 죽음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죽음이 존재해 온 것으로 보아서 지금까지 자신을 구세주, 메시아라고 주장한 존재들은 모두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죽음의 세상을 그대로 두는 것이 가짜요, 죽음의 세계를 없애고 영생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진짜 구세주입니다.

또한 진짜 구세주는 죽지 않는 비결의 학설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가짜 구세주는 죽지 않는 비결을 들고 나오지 못합니다. 진짜 구세주가 들고 나오는 죽지 않는 학설이 바로 자유율법입니다.

여기 승리제단은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고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자유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였다

인간은 원래 죽을 수 없는 존재였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요 영생의 신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간이 오늘날 죽게 되었을까요? 여기 승리제단에서 인간이 죽게 된 원인과 죽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세주 메시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세주요 메시아입니다. 그런고로 구세주는 죄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자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요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되어야, 구세주가 되어야 죽지 않는 존재로 화하게 됩니다.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자, 영생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99>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날아다닌다”

여러분들! 무량대수 마귀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탕! 하고 기도할 때에 ‘뿌리째’에서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뿌리-째’하고 길게 발음하세요. 이때 배 속에 있는 공기까지 빠져나가는데 이 기도법이 바로 은혜를 받는 기도법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하고 초초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

이 가르쳐준 대로 박멸소탕 기도를 하게 되면 구원을 못 얻을 자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가 되고 사람이 전부 하나님이 되어서 날아다닌다고 했죠?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날아다녔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기는 삶

기록하기의 힘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사람들이 세우는 신년 계획에 대해 인터뷰했는데, 당시 응답자는 자신의 계획을 적어두는 사람과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1년이 지나서 과거의 응답자들을 다시 인터뷰해 본 후,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계획만 세우고 적어두지 않은 사람 가운데는 오직 4%만이 어떤 변화를 이루어 냈지만, 결심한 내용을 적어둔 사람의 경우는 무려 46%가 계획을 관철해 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결심한 내용을 종이 에 적은 행동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취율의 차이가 무려 1,100%이었다.

글로 쓰고 안 쓰고의 사소한 듯 보이는 그 차이는 정말 엄청난데, 헨리에트 클라우저 박사는 ‘쓰면 이루어진다’는 책을 통하여 아들과 자신이 겪은 일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녀가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영감을 떠올리게 된 것은 아들 피터의 작은 경험담 덕분이었다.

그녀의 아들 피터가 12살 때, 하루는 피터가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는 매우 당황해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방 청소소를 하다가 이것을 찾았어요. 2년 전에 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 신기하게도 이 목록에 적혀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네요. 썼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가라테 수업받기, 연극에 참여하기, 공원에서 하룻밤 세우기” 등이 그 목록에 적혀 있었는데, 피터는 2년 동안 거기에 써놓은 모든 것을 해본 상태였다. 의식적으로 목록을 점검한 일도 없고, 그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말이다.

피터의 경험을 통해서 그녀는 ‘목표

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것을 깨닫게 된 때의 경험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내 인생의 기념비적인 하루, 나는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저자 사인회를 가졌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의 무대 뒤를 구경했으며 플라시도 도밍고가 부르는 노래를 현장에서 감상했다. 수백만 청취자를 대상으로 라디오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까맣게 잊고 있었던 목표 기록장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세상에! 거기에는 내가 그날 막 달성한 일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기록은 행동을 지배한다. 글을 쓰는 것은 시선경과 운동 근육까지 동원되는 일기기에 뇌리에 더 강하게 각인된다. 구체적인 목표를 적고 큰 소리로 읽은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사소한 노력을 지속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무엇인가 이루길 바라는 꿈이 있다면 꼭 종이에 정성껏 적어보자. 글로 쓴다는 것은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중된 에너지는 나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적절한 작용을 시작한다. 이것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꿈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해 보며 그때의 기쁨을 만끽해 보는 것도 에너지를 집중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미래의 어느 날, 자신이 기록했던 일들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수의 생일은 1월 6일이다》

예수의 생일을 12월 25일로 둔갑시킨 것은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이다

“메시아는 미트라에서 마이트라야, 메시아, 미륵으로 어원이 변천되어 왔다. 즉 메시아와 미륵은 기쁨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유대교인, 예수교인들과 불교인들이 말하는 인류를 구원할 존재는 동일한 한 본임을 알 수 있다.”

로마시대에 다수의 로마인들은 고대 이란(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조로아스터교의 미트라(태양신)를 신봉하고 있었다. 기원전 1세기에 로마에 전해져 이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후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서기 274년 태양신 탄생 축일인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 바꾸어 정하고 지켜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월 25일은 미트라 축일

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가 태어난 날은 1월 6일, 3월 25일, 5월 20일 등으로 알려

져 왔는데 AD300년 경에는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미트라(조로아스터교의 태양신)를 신봉하는 세력이 갈수록 강해져 심지어는 기독교의 존속이 위태로울 정도로 되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기독교를 이용하였는데 자신이 신봉하던 이 태양종교에서의 태양이 다시 태어나는 날과 예수가 태어난 날을 일치시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 바꾸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후부터 이날이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고 이전의 축제 풍습들은 그대로 크리스마스 풍습으로 옮겨져 버리게 되었

다. 그 한 가지 예가 북유럽의 나무송베의 식에서 유래한 크리스마스 트리이다.

Christmas(크리스마스)는 Christ(그리스도)와 Mass(미사, 축일)의 두 단어가 합하여 이루어진 말이다. Christ(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인 Christos(크리스토스)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히브리어인 메시아(Messiah)를 번역한 것이다. 메시아는 불교의 범어인 Mayetrya(마이트라)에서 온 말로 불경상의 생미륵불 즉 구세주의 의미이다. Mayetrya(마이트라)는 미트라(Mitra)가 어원이다.

크리스마스의 뜻은 메시아에게 제사를 올린다는 뜻

따라서 어원의 뜻을 충실히 직역해 보아도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Christ)에게 미사(Mass)를 올리는 축제 즉 메시아 제전이다.

헨리어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히브리어 ‘메시아’는 기쁨(성령) 부음을 받은 자이다. 메시아는 구약시대에 왕의 호칭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섹슈에 기원을 둔 메시아는 실질적으로는 미래에 출현할 우주적인 왕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된다

과거 우리나라는 가뭄이나 장마, 태풍으로 인해 가을의 쌀 풍년 농사가 잘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1981년 이후 우리나라 벼농사 평균 통계는 해마다 풍년작으로 쌀 수확량이 계속 증가해 왔다. 이처럼 여름 장마를 지지 못하게 하고, 태풍을 내륙으로 직접 불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마다 풍년 농사로 이어져 쌀 걱정을 면하게 되고, 쌀이 남아돌자 북한에 지원하기도 했다. 이 모두가 정도령님의 풍운조화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는 덕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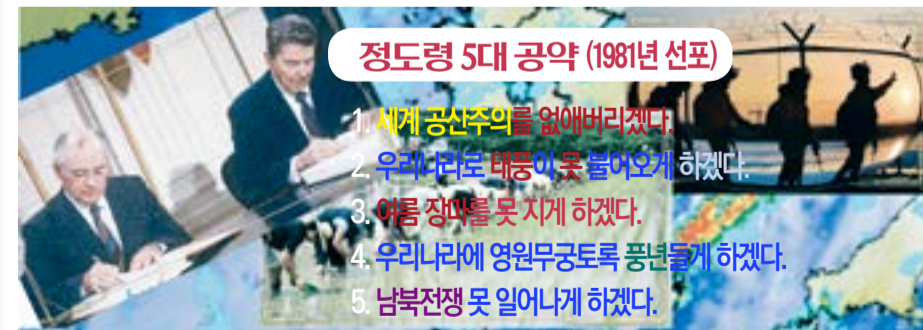
▲ 1981년 이후 계속되는 가을 풍년 쌀농사

자연을 상대로 1차 산업을 하는 모든 농업과 수산업, 임업 등은 적당한 물과 바람, 온도, 일조량 등 기후 조건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농사를 잘 지었다 해도 장마나 태풍, 그리고 가뭄이나 냉해 등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의 혜택을 과거에는 하늘 탓으로 돌리고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의 말씀처럼 구세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한 민족 가운데서 출현하여 다섯 가지 공약의 축복 말씀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된다고 하였으니 이보다 큰 행운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국과 세계적인 이상 기후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만 4개월 큰 피해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아 정도령님의 5대 공약 실행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격암유록에는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행하는 분이 정도령이며, 그 증표로 ‘화우로 삼종해인’을 가지고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다. 삼국유사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부인 3개를 받아와 장수 풍백(風伯), 운사(雲師), 우사(雨師)에게 오사(곡식·수명·질병·형벌·선악)를 주관하여 다스리게 했다는 것처럼, 장수 풍백, 운사, 우사는 바람과 구름과 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한다. 구세진인 정도령의 풍운조화 능력은 바로 한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계승되어 왔다는 증거다.*

一行徐輔睦



정도령 5대 공약 (1981년 선포)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 나라 태풍이 온 날이 없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치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영원무궁토록 풍년농작을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슴속에 응어리가 된 6·25전쟁을 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0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엄청난 규모의 재산 손실,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만약 제2의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한반도 국지전의 성격을 넘어서 세계전쟁으로 확대되어 전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공감

을 하게 되어 있는 일이다. 이간자 정도령께서는 절대로 그와 같은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신 것이다.

이 공약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계정세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며,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완전히 종식시키는 방법으로써의 남북통일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므로 치달을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공감